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23년 표어 §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마 22:37-40)

十 행동 지침 十

- 1. 다시 말씀 앞에(Reconfirm)
- 2. 다시 교회로(Rebuild)
- 3. 모두 함께 기쁨으로(Rejoice)

발행인 : 손달익 목사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다시 듣고 싶은 설교 ④

##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

(롬 5:6-8)



고 이종운 원로목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로마서 첫 부분에서부터 계속 언급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칭의교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서부터 우리를 갈라놓을 것은 이 세상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정점에 이릅니다.

바울은 하나님 사랑의 성격과 범위, 그리고 영원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8절)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어떤 것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감사는 그만큼 감소할 것입니다.

### 1. 죄인을 사랑하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한 사람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4개의 중요한 단어 곧 연약한 자, 경건치 않은 자, 죄인 그리고 원수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 연약한 자

연약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구원을 성취할 그 어떤 것도 할 만한 힘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들에 대해 전혀 이해할 수 없고(고전 2:14),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롬 3:11).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 이전의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로 하나님께 응답할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는 존재로 구원에 전혀 이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 경건치 않은 자

사도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들을 경건치 않음과 불의로 묘사했습니다(롬 1:18). 경건치 않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맹렬히 대적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지 않고 자기들 보기에 좋은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 죄인

죄인은 하나님의 표준에 미치지 못한 자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범한 불의한 자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경건치 않은 자가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이라며 죄인은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한 자를 말합니다.

■ 원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찾아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고 지옥에 던지려고 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원수 노릇 했던 우리를 하나님은 오히려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 2. 십자가에서 사랑하심

사랑받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그에게 순종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위대함이 더욱 크게 나타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7-8).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유추를 통해 더욱 크게 부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둔감하고 종종 그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죽음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깊고 위대한 사랑을 충분히 보게 되었습니다.

### 3. 하나님 사랑의 위대성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누가, 그리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위대하다는 것은 인간적인 수준의 큰 것이나 귀한 정도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요 3:16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 하나님이.....가장 위대한 사랑을 가지신 분(lover)
- 세상을.....가장 위대한 친구(company)
- 이처럼 사랑하사.....가장 위대한 정도(degree)
- 독생자를.....가장 위대한 선물(present)
- 주셨으니.....가장 위대한 사역(act)
- 그를.....가장 위대한 매력(attraction)
- 믿는 자마다.....가장 위대한 단순성(simplicity)
- 멸망하지 않고.....가장 위대한 약속(promise)
- 영생을.....가장 위대한 소유(possesion)
- 얻으리라.....가장 위대한 확실성(certainty)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위대한 진리는 우리 속에 숨어있는 죄를 토설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 죽게 됩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일본 내에서의 성서번역과 조선의 마케도니아인



손달익 위임목사

이수정이 한국기독교 역사에 미친 영향은  
성서번역에 머무르지 않는다  
조선인 유학생과 교사들을 적극적으로 전도

...

도쿄 최초의 조선인 신앙공동체까지 생김  
미국에 선교사를 파송해 줄 것을 요청

만주에서 쪽 북음서의 형태로 성서출간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무렵 일본에서도 성서번역이 시작되었다. 만주의 성서번역과 일본의 그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만주가 민중 계층 전도에 목적을 두고 순 한글로 성서를 번역하며 여러 명의 조선인들이 대부분 몇 달에서 1년, 가장 길게는 약 6년 동안 성서번역에 동참했다면, 일본은 지식인 계층의 전도를 위해 한 명이 **한자에 일본식 토를 다는 형태** 또는 **국한문 혼용**으로 짧은 기간 안에 번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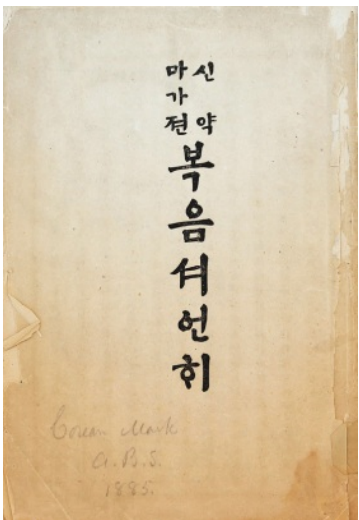
만주에서는 번역 착수에서 성경전서가 출간되기까지 10년의 시간이 걸린 반면, 일본에서는 **신약의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번역**에 약 한 달 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만주의 번역은 한문성서를 한글로 1차 번역하고 이를 "개정 그리스어 성경"을 기준으로 2차 번역한 뒤, 그리스어 성구사전과 메이어 주석 등을 참고하여 총 4차 번역까지 진행하였기 때문에 수고와 시간이 많이 들어갔지만 일본의 번역은 **한문성서에 우리말 토를 다는 간단한 방식**이었다. 일본에서의 번역이 이렇게 간편한 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우선 간단한 번역을 시도하고 이후에 이를 경험삼아 완전한 한글번역을 한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번역한 것을 보면 번역자가 한학에 조예가 깊은 지식인임을 알 수 있다.

겸한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하는 한편 31일 제물포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이수정은 박영효의 비공식 수행원으로 함께 일본에 건너갔다. 이수정은 앞서 신사유람단으로 일본을 방문하고 온 친구 안중수로부터 기독교인 농학자 쓰다 센(津田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일본에 가면 꼭 그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 도쿄에 도착하여 쓰다 센을 만난 이수정은 곧 기독교에 빠져들었다. 쓰다 센의 집에는 산상수훈이 족자로 걸려있었는데 이를 본 이수정이 쓰다 센과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자연스럽게 기독교로 대화의 주제가 이어졌다. 쓰다 센은 이수정에게 한문 신약성서를 선물로 주었고 원래 기독교에 대해 관심과 지식을 갖고 있던 이수정은 매일 성서를 읽으며 기독교 교리를 연구했다. 그리고 그해 성탄절에 도쿄의 장로교회인 쓰키지교회를 방문하고 감동을 받았다. 결국 이수정은 일본 체류 7개월 만인 1883년 4월 녹스(G. W. Nox)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다.

이수정은 미국성서공회 총무 루미스(Henry Loomis) 목사의 제안으로 1883년 5월부터 성서번역에 나섰다. **6월 현토성서인 『현토한한 신약성서』** 번역을 마무리한 이수정은 곧 이어 한글번역에 나섰다. 제일 먼저 마가복음을 번역하기로 마음먹은 이수정은 일본어 마가복음과 만주의 한글 번역성서를 참고하여 1884년 4월, **국한문 혼용의 『신약마가전복음서연히』** 번역을 마무리하였다. 이 마가복음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일본에 도착할 때를 맞추어 6천 부가 간행되었다. 덕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개척선교사가 그 나라 언어로 번역된 성서를 들고 입국하는 진귀한 사례를 남겼다.

이수정이 한국기독교 역사에 미친 영향은 성서번역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수정은 기독교인이 되자마자 조선인 유학생과 교사들을 적극적으로 전도하여 1883년 6월부터 결실을 맺기 시작했고 연이어 여러 명이 세례를 받게 되면서 연말에는 도쿄 최초의 조선인 신앙공동체까지 생겼다. 또한 이수정은 미국에 선교사를 파송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조선선교를 고심하던 일본 주재 선교사들에게 이는 "근대선교사상 가장 괄목할 만한 사건으로, 너무 좋아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기쁜 일이었다. 조선선교를 요청하는 조선인이 있다는 사실을 녹스 선교사가 본국에 알리자 미국교회는 이수정의 요청을 "조선의 마케도니아인의 부름"이라고 불렀다.

이수정은 한국의 선교는 반드시 미국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당시 조선선교에 일본교회가 관심을 갖자 선교지망생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수정은 이를 단호히 반대하였다.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복음이 조선에 들어온다면 그것이 예수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하였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선교사 파송을 요청한 이수정의 호소는 미국 각 교단의 선교사 파송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좌) 국한문 혼용 『신약마가전복음서연히』 번역본 (우) '조선의 마케도니아인' 이수정

일본에서 성서를 번역한 사람은 '조선의 마케도니아인'으로 불린 이수정이다. 1882년 6월 발생한 임오군란으로 일본 영사관이 불타고 일본인들이 피해를 입자 조선 정부는 8월 10일 박영효를 전권대신을



## 사순절 (四旬節) Lent

2023년 사순절이 다가왔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46일째인 수요일(올해는 2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날을 가리켜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 '성회(聖灰) 수요일' 또는 '참회(懺悔)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상징으로 머리에 재를 뿌린 데에서 유래했습니다. 사순절은 회개와 영적 생활의 갱신을 도모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죄를 고백하며 금식과 같은 엄격한 경건을 통하여 자신을 새롭게 할 뿐 만 아니라, 평소보다 더욱 구제에 힘써야 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는 복음서를 깊이 묵상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순절을 40일이 아니라, 46일 동안 지키는 까닭은 이 기간에 있는 여섯 번째 주일은 참회의 날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날로 지키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이 기간에는 특별히 결혼식 및 각종 축하 행사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부활절은 4월 9일 주일입니다.



## 보물을 하늘에 쌓는 심정으로

2교구 이순례 권사님이 지난 1월 장학금을 목적으로 교회에 2억 원을 헌금으로 드렸고, 당회는 이를 감사히 받으며 명칭을 「순례장학금」으로 정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6면 참조) 이순례 권사님은 이후로도 생전에 매년 1억 원씩을 낼 것이라고 한다. 이에 순례자는 이순례 권사님을 만나 교회에 장학금을 헌금하게 된 동기와 앞으로 서울교회와 서울교회의 젊은이들에 대한 바램을 들어보았다.

**순례자 : 이번에 교회에 장학금을 헌금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이순례 권사 :** 남편 김상식 집사가 2020년에 소천하시고 난 후 생전의 남편이 할렐루야교회 때부터 고 이종윤 원로목사님을 남다른 존경했고 또 남편이 사랑했던 서울교회에 무엇인가 기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때가 있는 것처럼 그동안 기도하며 생각했던 일을 하나님의 때가 되어 지난 1월 25일 장학금을 헌금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장학재단을 만들려던 것은 아니고, 근래 큰 자부 김희정 권사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기왕이면 교회 젊은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냐는 김희정 권사의 말을 듣고 나 역시 젊은이들을 위해 쓰여진다면 더없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



그리고 젊은이들에게는 하나님 제일 신앙이 투철하게 자리 잡혀서 세상의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세상을 살면 살수록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

다.

나의 이런 생각을 자녀들에게 얘기했을 때 아들 넷이 한 명도 반대하지 않았고 가족 모두 기쁜 마음으로 제 생각을 성원해 주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김희정 권사:**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어머님을 이전보다 더 자주 찾아뵙게 되고 대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관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특히 올 초 3부 예배가 젊은이 예배로 바뀌었고 남편 김정훈 안수집사(임마누엘찬양대 부대장)와 함께 임마누엘 찬양대를 섬기면서 자연스럽게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성세대인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정성을 쏟는다면 쏟는 만큼의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순례자 : 「순례장학금」을 통해 학자금을 받고 자라날 젊은이, 혹은 서울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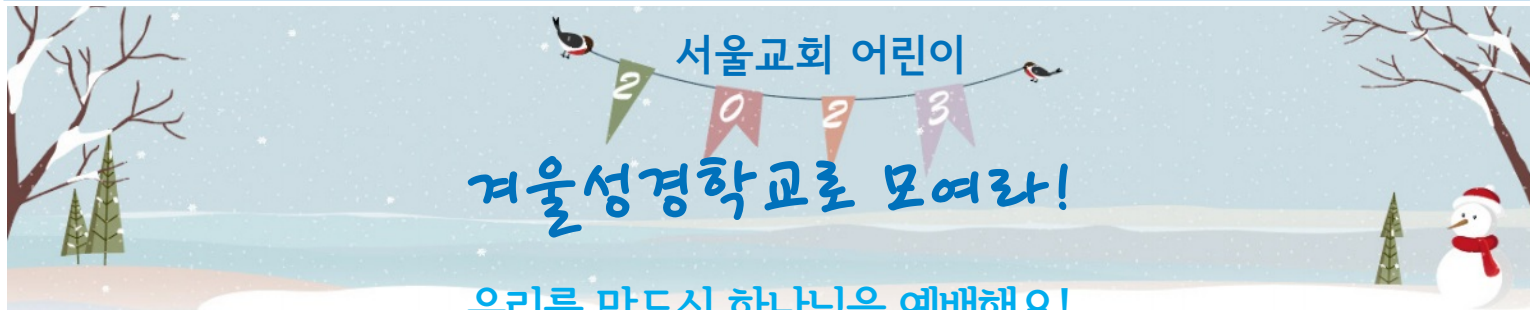
**이순례 권사님 :** 무엇보다 저는 서울교회가 하루 빨리 부흥되어 이전처럼 교회에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학금을 내면서도 오직 서울교회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써 달라고 목사님께 당부했습니다.

나님 신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꼭 신앙제일주의로 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막내아들 진훈 집사가 작년 흥해작년 새벽기도회를 완주하며 부쩍 신앙이 깊어진 것을 보며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엄마의 심정으로 우리 교회 모든 젊은이들이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가지고 앞날을 잘 헤쳐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이순례 권사님은 올해 헌금한 장학금이 내년이나 되어야 사용될 것이므로 올해 장학금으로 전·후반기에 각각 500만 원씩을 낼 것이라고 했고, 호산나대학에도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마 6:20)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보물을 하늘에 쌓는 심정으로 거액을 교회에 쾌척하신 이순례 권사님께 감사드리며 이러한 헌신과 성도들의 간절한 바램과 기도로 멀지 않은 날 서울교회의 예배당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차고 넘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인터뷰 · 정리 : 허숙 권사(편집부)  
촬영 : 정승균 안수집사(편집부)



김세호 안수집사 (유아부 부장)

유아부 겨울성경학교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유아부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신앙의 기초를 세우고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의 기도와 헌신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2023년 겨울성경학교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예배해요”를 주제로 2월 25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26일(주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에 걸쳐 유아부실(706호)에서 진행됩니다.

유아부 아이들은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이해하고,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배울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공부와 함께, 와우북 만들기, 음악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요리활동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체험하며, 신체활동을 하며 신나게 유아부 친구와 선생님들과 강한 연대를 느끼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세부터 5세까지의 어린이를 두신 부모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

리고, 혹시 주위에 이러한 아이들이 있다면, 함께 참여를 독려해 주셔서 더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알아가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울교회가 회복되고 다음 단계로의 성장이 필요한 이 시기에, 미래를 책임지게 될 아이들에 대해 더욱 더 많은 기도와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유아부는 아이들이 태어나 처음으로 독립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때입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성경잔치에 초대되는 우리 유아부 아이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바르게 믿어요!



한대석 안수집사 (유치부 부장)

살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유치부에서는 올 겨울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는 만큼 믿음도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회 유치부의

겨울성경학교 주제는 “바르게 믿어요”입니다. 아이들이 예배와 활동 등을 통해 복음을 체험하고, 자신만의 믿음의 씨앗을 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서울교회 유치부의 성경학교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아이들만의 잔치는 아닙니다.

6세-7세 아이들 중에 현재 유치부를 나오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서울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손녀, 손자들을 초대해 주셔도 좋고,

주변 지인들의 자녀들을 전도하는 기회로 삼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교회 유치부는 한번 빠지면 그 매력에서 헤어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사랑이 넘치는 부서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들이 복적이는 서울교회가 되길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 신나는 성경 탐험, 구약 속으로!



이승준 안수집사 (유년부 부장)

2023년 유년부는 구약성경 1독을 목표로 시작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지도할 우리가 말씀을 많이 외우고 알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더 많이 그리고 더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계속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으로도 시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성경통독일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준새번역으로 부모님이 같이 읽는다고 해도 우리 유년부 학생들은 내용과 문장을 쉽게 잘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 성경학교는 우리 유년부 학생들에게 구약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성경이야기를 통해 구약성경의 큰 그림을 이해하고, 말씀을 우리 삶의 지침으로 삼을 것을 다짐하는 이번 성경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함께 은혜받고 구약통독에 대한 자신감을 얻어 갔으면 합니다.

또한, 이번 성경학교는 중요 핵심 사건과 인물들에 맞춰 모션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25(토), 26일(주일) 양일간의 교육을 통해 구약 전반의 중요 사건들을 몸으로 익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즐거운 모션 훈련을 통해 아이들은 전체적인 흐름과 중요한 주제를 선명하게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25일 토요일 오후 2시 50분부터 3시 50분까지는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함께 찬양과 율동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자녀들의 신앙적 올바른 성장을 위한 영적인 양육의 문제를 주님께 부모님, 교사, 그리고 학생 모두가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 성경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을 기도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 담당 전도사님부터 유년부 교사 전체가 합심하여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교인분들도, 우리 유년부를 포함한 전 교회학교 다음 세대들이 이번 겨울 성경학교를 통하여 영육간의 강건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교하지 않아요!



임대중 안수집사  
(초등부 부장)

살롬!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나의 가치를 평가하고 내 위치를 가늠하려는 비교의식에 둘러싸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역시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것들을 더 빠른 속도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는 무엇이며 그 가치는 무엇으로 정해질까요?

이번 겨울성경학교를 통해 “비교하지 않아요!”라는 주제를 통해 왜 우리는 비교하지 않아야 하는지,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비교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나누려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나’,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비교될 수도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나라의 소망을 품게 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겨울성경학교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요,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나’의 가치를 알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흘러 넘쳐 내 가족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우리가 모여 서울교회에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초등부 그리고 가정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2023년도 겨울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성도여러분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서울교회 초등부 겨울성경학교에 성도님들의 자녀와 손자, 손녀를 초대합니다.



## 지난주 우리 교회는...



(위) 손달익 위임목사님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부 주최 '2023 중미권역 선교사대회'의 주강사로 초청받아 2.13(월) 출국하여 일정을 진행 중에 계시다. 남은 여정과 귀국을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왼쪽, 아래) 사랑부(부장:장창수 안수집사)는 지난 11일(토)-12일(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를 주제로 겨울수련회를 진행했다. 기도해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후원해 주신 성도들에게 감사드린다.



## 이순례 권사 장학금 헌금

- 순례장학금으로 명명 -

2교구 이순례 은퇴권사께서 교회에 장학금으로 2억 원을 헌금하였다.

이에 따라 당회는 2월 12일(주일) 아침에 임시당회를 열어 이 장학금을 감사함으로 받기로 하고 그 명칭을 '순례장학금'으로 정하였다. 앞으로 교회는 이를 장학기금으로 운영하여 그 수익금으로 서울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그동안 서울교회에 성도들이 헌금하

신 장학금은 김복녀 권사께서 신학대학교·신대원생들을 위한 브리스길라장학금, 고 임임희 집사 유가족께서 교역자·선교사 자녀를 위해 송암장학금을, 고 임광식 원로장로 유가족께서 대학생들을 위해 헌금한 광림장학금 등이 있으며 교회에서 그 수익금으로 매년 대학생들과 신대원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 2023년 겨울성경학교 · 수련회

구분	주제	주제 말씀	일정	장소
영·유아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예배해요	창 1:31	2/25(토)-26(일)	서울교회 706호
유치부	바르게 믿어요 (복음과 구원받는 믿음)	엡 2:8	2/25(토)-26(일)	서울교회 702호
유년부	신나는 성경 탐험, 구약 속으로!	시 119:105	2/25(토)-26(일)	서울교회 701호
초등부	비교하지 않아요!	엡 2:10	2/24(금)-25(토)	아가페타운

## 2023년 봄 서울성경대학 및 열린프로그램

강좌	요일 및 시간	기간	강사 / 담당	장소
시편	화, 오전10:30-12:00	3.7-4.25 (8주)	현종필 목사	서울교회 602호
히브리서	목, 오전10:30-12:00	3.9-4.27 (8주)	조원영 목사	서울교회 602호
아기학교	주일, 오후 2:00-3:10	3.12-5.14(10주)	강남희 전도사	서울교회 706호
살롬경로대학	목, 오전 10:30-13:30	3.9-5.11(10주)	박미라 전도사	서울교회 10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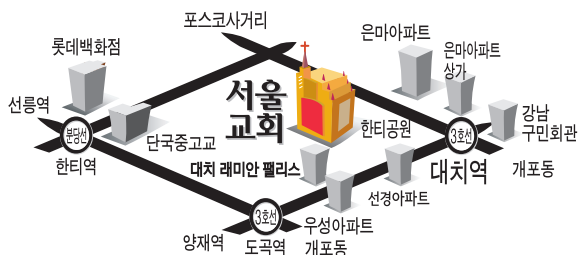
##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2월20일	월	민 5-6		삼상 12-17	
2월21일	화	민 7		삼상 18-23	
2월22일	수	민 8-10		삼상 24-31	
2월23일	목	민 11-13		삼하 1-6	
2월24일	금	민 14-15		삼하 7-13	
2월25일	토	민 16-19		삼하 14-19	
2월26일	주일	민 20-22		삼하 20-24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I 부 예배	오전 9시
	II 부 예배	오전 11시
	III 부 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I 부 예배	오전 11시
	II 부 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민스터 홀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웨스트민스터 홀

### ■ 교회 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 PRAY FOR TURKIYE & SYRIA

###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특별 구제헌금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예배 시간에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피해 특별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 동정

■ 식사 제공 : 교회 제공

##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세상 앞에 신뢰받는 신행일치의 삶을 사는 순례자 되게 하소서.
2. 다시 말씀 앞에, 다시 교회로 모여, 모두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서울교회 되게 하소서.
3.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지역 이재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빠른 복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소서.